

##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Carolyn Pope Edwards

미국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  
 가족소비자 및 심리학과

하 영 희<sup>†</sup>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부모애착, 부모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등을 탐색하여 가족맥락 안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남녀 31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적용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학적 배경은 부모용 응답지를 그리고 부모애착, 부모모니터링 및 조망수용은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응답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첫째, 부모애착과 부모모니터링이 높을수록 부모와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았다. 둘째,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다회귀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애착과 조망수용이,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애착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 성 차 구분에 의한 분석에서 남아의 경우,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애착과 조망수용이,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예언변인이었다. 여아의 경우,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애착이,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애착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예언변인으로 나타나 성 차에 따른 관련변인의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조망수용, 친사회적 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sup>†</sup> 교신저자 : 하영희,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4 삼익비치 210-1112, E-mail : 72smile@dreamwiz.com

개인의 최초의 사회생활은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협력과 양보 등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양보 그리고 협력 등은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관계가 애정적이고 친사회적일수록 자녀의 외로움과 비행은 감소한다(김선미, 1995; 오현미, 1999). 친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행동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교육적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행동의 강화 역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점점 낮아지고 가족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현실에서 초기 청소년의 가족맥락 속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초기청소년기는 사춘기 진입, 상급학교 입학 및 역할 전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후기 청소년보다 심각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박영숙, 2003). 본 연구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 및 형제들을 위하여 가족맥락 속에서 초기청소년이 할 수 있는 양보, 배려, 나누기, 돌보기 및 도움 등과 같은 행동을 말한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변인검증과 관련하여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문연심, 2004; Eisenberg & Fabes, 1998; Kearney, 1986)과 사회인지 발달적 접근(이혜주, 1997; Bengtsson, & Johnson, 1992; Carlo, Hausmann, Christiansen, & Randall, 2003)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에서는 주로 부모양육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부모양육의 중요성은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사회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생

각해 볼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합당한 행동을 알게 되고 또 사회의 규칙 및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부모양육을 통하여 자녀는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된다. 부모양육의 차원은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갈래로 크게 나누어지는 데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과 부모-자녀간의 애착이다(전영실, 2002, 재인용). 최근 들어 부모양육과 부모애착은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연구변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학습 이론가(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h, 1991)에 의하면 자녀가 외출할 때 혹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등 자녀의 다양한 활동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부모모니터링(parent monitoring)은 자녀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부모양육 방법의 하나로써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안한다.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설득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는 부모일수록 부모모니터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 2001)는 부모모니터링이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맥락 안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동시에,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의 보호변인(Laird, Pettit, & Bates, 2003; Laird, Pettit, & Dodge, 2003)으로 연구되고,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부적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김경연, 하영희, 1998;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들은 부모모니터링이 친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한편, 자녀의 부모모니터링 수용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부모모니터링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허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와 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Kerns, et al., 2001)가 이를 뒷받침 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사회적 유능감과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박지아, 2003; VanLange, DeBruin, Otten, & Joireman, 1977), 터키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부모애착이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Asiye, 2002). 초기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또래와의 관계 강화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특성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아동기와는 다른 부모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초기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적절한 부모양육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arlo, Fabes, Laible 및 Kupanoff(1999)는 초기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갈등이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탐색변인으로 부모양육의 방법인 부모모니터링과 부모애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모니터링과 부모애착에 이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정희원, 1996; Hoffman, 1975; Maccoby, 198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란 한 가정이 사회 및 경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가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는 자녀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및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심을 둔다(Maccoby, 1980).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며(Asiye, 2002) 사회적 유능감은 곧 친사회적 행동 능력을 나타낸다(김애경, 2002).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부적관계를 밝힌 연구(김광수, 1990; 김동청, 1987)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친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심을 두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면서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자녀의 조망수용이 발달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인지론가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개인의 중요한 내적변인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사고, 역할, 동기 등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인 조망수용에 주목한다(Bengtsson & Johnson, 1992; Shaffer, 2000).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청소년들이 어린 아동기와는 달리 인지적 발달로 인하여 돕기 혹은 공유하기 및 배려하기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행동을 이행하게 하는 데 조망수용이 중요한 변인임을 지지하고 있다(Selman, 1980; Fletcher, Elder, & Mekos, 2000). 그러나 조망수용이 미국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Carlo, Knight, Eisenberg & Rotenberg, 1991)가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임을 보고한다(Asiye, 2002; Carlo et al, 1999).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적이고

신체적인 해결 중심에 그리고 여아는 배려와 대인관계 중심의 양육방식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Ruble & Martin, 2002). 특히, 여아들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돕기를 더 요구하는 성 역할 및 가사노동 책임이 주어지는 한국문화의 사회화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성 차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형제들에게 여아는 바른 품행에, 남아는 운동능력 발달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박영애, 1996)가 있다. 이는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성 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따라서 가족맥락 속에서의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성차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부모애착, 부모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을 남녀별로 탐색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반사회적 행동 예방의 요인으로 친사회적 행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맥락 안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부모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에 따라 부모와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성 차에 따라 부모와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애착, 부모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중에서 부모와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부모와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해 주는 변인들은 성 차가 있는가?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청소년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초등학교 6학년(110명)과 중학교 1(104명), 2(96명)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청소년 310(남; 149, 여; 161)명과 학부모(보호자)들이다. 청소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12-14세로 본 김애경(2001)의 연구와 11세-14로 본 유안진, 한유경, 김진경(200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초기청소년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90.0%이상이고 어머니의 78.9%이상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01~200만원이 50.4%로 보고되었다.

### 측정도구

#### 부모와 형제에 대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부모용 응답 설문지)

부모와 형제에 대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부모용 설문지는 Asiy(2002)의 부모용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Measure(APE)를 우리 가족문화에 부합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용 설문지는 가족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기술한 것으로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은 각각 25문항과 26문항이다. “부모가 아플 경우 잘 돌보아준다” 그리고 “형제끼리 놀이기구 혹은 개인사물을 잘 공유 한다” 등의 영역별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부모 및 형제에 대하여 각각 .91, .95로 나타났다.

### 부모모니터링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모니터링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born et al.(1991)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중에서 부모모니터링 영역을 본 연구의 목적과 국내 청소년의 실정에 부합되게 6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자녀의 바깥 행동 및 친구관계 등에 대한 감독을 기술하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 하신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3점의 응답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모니터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 .85이었다.

### 부모애착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와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부모에 대한 신뢰 및 애정 정도 등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화가 날 때가 자주 있다”라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에서 “항상 그렇다” 1점의 응답범주를 가져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용 응답 설문지)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과 한 달 수입을 서열화하여 양적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직업, 특히 부의 직업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본 설문지는 자신들의 학력과 한 달 수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으며, 유홍준과 김월화(2002)는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과 수입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직업이 학력 및 수입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 조망수용

청소년의 조망수용 측정을 위하여 Davis(1983)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척도에서 조망수용 영역인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개 문항을 제외한 6문항이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척도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 친구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한다”와 같은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망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 .62이었다.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나 Cronbach'  $\alpha$ 가 .60 이상으로 본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2년 11월 25일~12월 5일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 330명과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용 및 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학생이 응답하여야 할 설문지(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는 학급별로 교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모용 설문지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주어 부모 응답 후 본인의 설문지 봉투에 같이 넣어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각각 318부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각각 31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점수인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부모모니터링,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

표 1.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모니터링, 부모애착 및 조망수용에 따른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변 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값	
PTP	사회경제적 지위	하	60.95	14.20	.10	
		상	62.52	17.41		
	부모모니터링	하	57.53	14.59	3.95**	
		상	66.06	16.18		
	부모애착	하	57.67	15.40	4.69**	
		상	66.54	15.48		
	조망수용	하	59.03	14.93	3.14*	
		상	64.99	15.97		
	PTS	사회경제적 지위	하	65.85	18.01	2.82*
			상	75.99	22.91	
부모모니터링		하	64.20	20.73	2.62*	
		상	71.84	20.83		
부모애착		하	63.21	20.35	4.30**	
		상	74.17	21.37		
조망수용		하	66.58	21.62	1.54	
		상	70.65	21.27		

PTP: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PTS: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 p<.01, \*\* p<.001

수용에 따른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모니터링,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에 따른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모니터링,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의 상 하 집단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모니터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 $t=3.95, p<.001$ ) 및 형제( $t=2.62, p<.01$ )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및 형제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이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애착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 $t=4.69, p<.001$ ) 및 형제( $t=4.30, p<.001$ )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및 형제를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조망수용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망수용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 $t=3.14, p<.01$ )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형제( $t=2.82, p<.01$ )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고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

성 차에 따른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차이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 차에 따라

표 2. 성 차에 따른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남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t값
PTP	58.51(16.19)	65.02(15.39)	3.43*
PTS	65.83(1.87)	70.75(22.35)	1.87

PTP: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PTS: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  $p<.001$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아들이 남아들 보다 부모 및 형제를 위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부모( $t=3.43, p<.001$ )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과 4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영향력의 순서가 연구대상 전체와 성 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전체 집단의 경우,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부모애착( $\beta=.42, p<.001$ )과 조망수용( $\beta=.20, p<.05$ )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21%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애착과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부모애착( $\beta=.37, p<.001$ )과 사회경제적 지위( $\beta=.30,$

표 3. 청소년의 부모 및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F
전체	PTP	부모애착	.91	.42***	.18	19.41***
		조망수용	.82	.20*	.21	12.26***
	PTS	부모애착	1.01	.37***	.14	14.39***
		사회경제적 지위	2.01	.30**	.23	12.98***
남아	PTP	부모애착	.72	.42**	.17	8.01**
		조망수용	1.32	.36*	.36	7.95***
	PTS	사회경제적 지위	2.24	.32*	.10	4.42*
여아	PTP	부모애착	.93	.39**	.15	9.16**
		부모애착	1.13	.42**	.18	10.75**
	PTS	사회경제적 지위	1.88	.29*	.26	8.64***

PTP: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PTS: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p<.05, \*\*p<.01, \*\*\*p<.001,

p<.01)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23%를 설명하고 있다.

성 차에 따른 분석결과는 관련변인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남아의 경우,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부모애착( $\beta=.42$ ,  $p<.01$ )과 조망수용( $\beta=.36$ ,  $p<.05$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36%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애착과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지위( $\beta=.32$ ,  $p<.05$ )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청소년의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10%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아일수록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

한 영향력은 부모애착( $\beta=.39$ ,  $p<.01$ )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여아의 부모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15%를 설명하고 있다.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부모애착( $\beta=.42$ ,  $p<.01$ )과 사회경제적 지위( $\beta=.29$ ,  $p<.05$ )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은 여아의 형제를 향한 친사회적 행동 전체 변량 중 약 26%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 차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남아는 부모애착과 조망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여아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남아일수록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여아의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높다.



## 논 의

가족맥락 속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밝히는 일은 초기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통한 사회적 부적응 예방 및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고자 연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모니터링,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이 독립변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모니터링과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Eberly & Montemayor, 1998)과 부모모니터링(Asiye, 2002)이 초기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부모모니터링(Laird, Pettit, & Dodge, 2003)이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초기청소년기는 유아 및 아동기와는 다른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에 적절한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훈련은 청소년의 부모애착 수준을 높일 것이며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반항보다는 부모모니터링을 수용하게 하여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도울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형제들은 개인의 옷 혹은 기타 소지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물건에 집착할 수 있으며 다른 형제들에 의해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을 경우 다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형제간의 소지품 공유 혹은 빌려주기 등에 인색하고 이로 인한 다툼을 자주 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관계로(정영애, 김정미, 2002) 형제간의 학업 혹은 숙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형제간의 소지품 공유하기와 양보 그리고 숙제 혹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을 측정한다면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아 단정적인 해석은 어려우며 지속적인 후속연구는 본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주리라 기대한다.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조망수용이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변인이라는 선행연구와는 일치(이혜주, 1996; Batson, 1998)하였지만 조망수용과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Asiye(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성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Asiye(2002)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를 돌보거나 가사조력에 더 협조적임을 보고한 연구(Call, Mortimer, & Shanahan, 1995; Goodnow, 1988)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가족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관련하여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일들을 많이 돕도록 사회화 된 것과 관련 있

우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기청소년의 가족맥락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욱 잘 설명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위하여 사회화 경험에서 오는 성 차를 좁힐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측정도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 차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형제를 돌보는 일이 더 많음을 보고한 연구(Schvaneveldt & Ihinger, 198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가족맥락 안에서 성 차 구별 없이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초기청소년의 전체 집단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은 부모애착과 조망수용이고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은 부모애착과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타났다. 성 차에 따른 분석에서, 남아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부모애착과 조망수용이며,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여아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부모애착이며,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부모애착과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본 연구결과, 부모애착은 남아의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불안정적인 애착보다 사회적 적응도를 높이고(Davies & Cummings, 1998) 자녀의 정서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자녀로 하여금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Cassidy, 1994)에 의해 지지된다. 조망수용은 전체 집단은 물론 성 차 분석에서 남아의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타인의 상황에 대한 추론과 정서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긍정적 자원이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스스로 부모를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는 조망수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신의 대인능력에 대해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갖기(Berk, 1991) 때문에 조망수용이 높은 남아일수록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망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아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감성교육과 대인관계훈련이 조망수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이승은, 이영석, 2003; 심상욱, 2003).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든 조건에서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형제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형제들보다 공격적이며 형제간 싸움도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임정희, 1979, 재인용)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통제력에 관심을 가져(임정희, 1979, 재인용) 형제관계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 관계에 영향을 주고(김상희, 박성연, 1990), 형제관계의 질은 형제들의 자기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박영애, 1996)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행동 결과에 대한 형제 집단간 강화로 형제간 경쟁의식보다는 자녀

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는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의 형제간에 긍정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의 형제간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리라 기대된다. 한편, 부모 및 형제에 대한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남아와 달리 부모애착이 각각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가정의 사회화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부모로부터 대인관계 지향적으로 양육 받은 여아는 부모로부터 받은 대인 지향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모와 형제간의 애정적 관계가 강화되고 또 그것은 피드백 되어 여아에게 돌아와 여아와 부모 및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남아와 부모 및 형제간의 상호작용보다 더 원활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해서는 남아와 여아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특히 부모모니터링과 애착 및 조망수용)들은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번역 및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가 평가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측정에 대한 부모 및 청소년의 평가를 모두 포함한 자료 분석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보다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특정도시의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 자료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지역과 연구대상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연, 하영희 (1998). 사회화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9(2), 69-83.
- 김광수 (1990). 소외와 문제행동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청 (1987).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방안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상희, 박성연 (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학회지*, 11(2), 59-81.
- 김선미 (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영숙 (2003). 초기청소년의 위기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2(2), 182-190.
- 박영애 (1996). 아동의 형제관계와 자존감과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315-328.
- 박지아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상욱 (2003). 대인관계훈련 프로그램이 지체부자유아의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총연합회*, 1-120.
- 오현미 (1999).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1.
- 유홍준, 김월화 (2002).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5(2), 35-66.
- 이승은, 이영석 (2003). 유아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6, 17-41.
- 이혜주 (1997).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차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1(2), 189-221.
- 임정희 (1979). 아동의 가정환경 요인과 인성발달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연구*, 1(9), 38-48.
- 전영실 (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13(1), 89-121.
- 정영애, 김정미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인문논총*, 9, 113-136.
- 정희원 (1996). 가정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친사회적 동기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인과모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msden, G. & Greenberg, M.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adolesc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istead, L., Forehand, R., Beach, R., & Brody, H. (1995). Predi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in young adulthood: The roles of family, self, and peer syste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4, 445-460
- Asiye, K. (2002). Prosocial behavior within the family context and its correlates among Turkish early adolescents. Ph.D. Diss. Nebraska-Lincoln Univ.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C.,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tson, D. (1998).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4th ed., pp. 282-316). Boston: McGraw-Hill.
- Bengtsson, H., & Johnson, L. (1992). Perspective-taking,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late childhood. *Child Study Journal*, 22, 1, 11-22.
- Berk, E. (1991). *Child development*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Call, K., Mortimer, J., & Shanahan, M. (1995). Helpfulness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29-138.
- Carlo, G., Fabes, A., Laible, D., & Kupanoff, K.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behavior II: The role of social and contextual influenc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133-147.
- Carlo, G., Knight, G., Eisenberg, N., Rotenberg, K. (1991). Cognitive processes and prosocial behaviors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56-461.
- Carlo, G., Hausmann, A., Christiansen, S., & Randal, B. (2003). Socio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a measure of prosocial tendencies for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 1, 107-134.
- Carlo, G., Raffaelli, M., Laible, D., & K. Meyer (1999). Why are girls less than physically aggressive than boys? Personality and Parenting mediators of physical aggression. *Sex Roles*, 40, 9/10, 711-729.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228-249).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Davis,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P., & Cummings, E. (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24-139.
- Eberly, M., & Montemayor, R. (1998). Doing good deeds: An examination of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403-432.
- Eisenberg, N., & Fabes,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01-778). N.Y.: John Wiley.
- Fletcher, C, Elder, H., & Mekos, D.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ce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1, 29-48.
- Goodnow, J. (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5-26.
- Hoffman, L. (1975). Altruistic behavior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5), 937-943.
- Kearney, H. (1986). The effect of induction training and role-playing training of the prosocial behavior of preschoolers in a natural setting. Ph.D. Diss. New York Univ.
- Kerns, A., Aspelmeier, J., Gentzler, A, & Grabil, C. (2001). Parent-child attachment and 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69-81.
- Lamborn, D., Mounts, S., Steinberg, L., & Dornbusch,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rian, indulgent,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aird, R., Pettit, G., & Bates, J. (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aird, R., Pettit, G., & Dodge, K. (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401-419.
- Maccoby, E.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 Y. : Harcourt Brace Jovanovich.
- Ruble, D. & Martin, C. (2002).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course of gender differentiation: Compliments, Queries, and Quandarie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 2, 148-166.
- Selman, R.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Y.: Academic Press.

- Schvaneveldt, J. & Ihinger, M. (1985).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family.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N.Y.: Free Press.
- Vanlange, P., DeBruin, E., Otten, W., & Joireman, J. (1997). Development of prosocial,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orientations: Theory and preliminar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3, 733-746.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1. 27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2. 15

## The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pective-taking on early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toward parents and siblings

Carolyn Pope Edwards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Young Hi Ha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from 310 6th, 7th, and 8th grade students and parents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parents attachment and parents monitoring, the higher prosocial behavior towards parents and siblings, the higher perspective-taking, the higher prosocial behavior towards parents, and th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the higher prosocial behavior towards siblings. More prosocial behavior toward parents was reported by girls than by boys. Prosocial behavior toward siblings did not show a gender difference. In the total group, high parent attachment and perspective-taking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parents; high parent attach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siblings. In the boy group, high parent attachment and perspective-taking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parents; high socioeconomic status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siblings. In the girl group, high parent attachment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parents and high parent attach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predicted prosocial behavior towards siblings. Discussion focused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s attachment, perspective-taking, and socioeconomic status in predicting early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key words* : *parents attachment, perspective-taking, prosocial behavior, socioeconomic status*